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계시와 성경,
8차시, 내적 일반 계시,
로마서 2:12-16과 전도서 3:11. 섭리 속의
일반 계시, 사도행전 14:14-18과 17:22-29**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계시와 성경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A. 피터슨 박사입니다 . 이것은 세션 8, 내적 일반 계시, 로마서 2장 12-16절과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섭리 속의 일반 계시, 사도행전 14장 14-18절과 17장 22-29

절입니다. 우리 아버지, 당신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며,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따라 구약과 신약 시대에 당신의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계시가 그보다 더 크셔서, 창조물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인간의 마음에 당신의 법을 기록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방금 로마서 2장 12-16절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자신의 법을 기록하셨고, 모세의 율법이 없고, 성경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그 법의 효과를 때로는 옳은 일을 하고 때로는 그른 일을 하며, 그들의 양심이 그 일에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핵심 구절들에 대한 다른 해석과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주석으로 가서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창조물에서 자신을 알리시고, 외부의 일반 계시는 세상에서 우리 밖에 계시며,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는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본성 그 자체에 있는 내적 일반 계시에서도 자신을 알리십니다. 따라서 인간의 본성은 계시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사실 두 가지 의미에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굴에 있는 사람이 외부 일반 계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그의 호흡과 심장 박동 등으로 인해 불가능합니다. 그가 자신의 몸을 느낀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외부 일반 계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본 로마서 1:32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을 알고 있지만,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죽을 만한 죄의 전체 목록이 있지만, 그들은 그런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승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2장에서 바울은 다른 사람의 삶에서 어떤 것을 승인하지 않고 스스로 그 일을 하는 위선자들을 비난합니다. 로마서 1:32와 2:12-16에서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모두 율법의 요구 사항이 마음에 기록되어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자신의 도덕적 요구를 계시하십니다.

이것은 내적인 일반 계시입니다. 로마서 2:14-15,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적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행할 때, 비록 율법이 없더라도 그들 스스로에게 율법이 됩니다. 그들은 율법의 행위가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이고,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며, 그들의 상충되는 생각들이 그들을 고발하거나 심지어 변명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복음에 따른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우리의 내적인 비밀이 16절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나 그의 말씀을 알기 전에도 그들은 본성적으로 율법의 일을 합니다. 이방인들은 계명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요구 사항은 그들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게 합니다.

그것들은 내적인 일반 계시입니다. 그것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은 그것입니다. 그것들 자체가 일종의 신의 도덕적 계시입니다.

아, 부도덕하거나 비도덕적이예요. 아니, 비도덕적이지 않아요. 도덕적이거나 비도덕적이예요. 번갈아가며요.

우리가 도덕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신의 형상의 일부입니다. 법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양심이라고 부르는 내부 계량기를 사용하여 우리의 행동에 대한 판단을 내림으로써 표현됩니다. 우리의 양심은 때로는 우리의 행동을 비난하고 때로는 우리의 행동을 변호하고 변명하기 위해 작동합니다. 아마도 우리의 양심은 우리의 행동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우리의 내부 도덕 원칙에 따라 작동합니다.

로마서 2:15.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도덕적 요구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최악스러운 행동이 잘못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하다는 것을 압니다. 1:32. 알다시피, 바울은 로마서 2:14와 15까지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법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1:32에서 그가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을 알면서도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죽을 만하다고 말했을 때 이미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에 기록된 법의 효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방금 자세히, 아주 큰 목록으로 나열된 죄가 죽음을 받을 만하다는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 때문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1:32는 2:14와 15를 전제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런 내적 일반 계시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 드러났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 내적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의의 속성과 심판의 사역을 드러냅니다. 1절 32절. 이 내적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으며 이 구절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억압되고 왜곡되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도덕적 요구 사항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2장 1절에서 3장의 위선에서 입증된 것처럼 같은 죄를 변명합니다. 따라서 내적 일반 계시와 외적 일반 계시 사이에는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유사점은 둘 다 일반 계시의 종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해 아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마음에 신의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두 계시는 모두 작동한다는 점에서도 비슷합니다. 신의 외부 일반 계시는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인간 양심의 작용으로 입증된 것처럼 그의 내부 일반 계시도 전달됩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누군가가 누군가가 자신에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기분이 상했다고 말해요. 그건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신의 법의 결과예요. 이 점에서 그들은 달라요.

우리 밖에 있는 그의 창조물에서의 하나님의 계시는 그의 영광, 아름다움, 권능, 지혜를 보여주지만 그의 거룩함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에머슨은 자연은 이빨과 발톱이 붉다고 말했습니다. 사자가 영양을 먹을 때, 사자는 죄를 짓는 것인가요? 아니요, 관련이 없습니다.

사자와 영양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부 일반 계시와 달리 내부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냅니다. 물론 타락 이후로 불완전하게, 그의 정의와 심판의 사역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일은 창조, 섭리, 구원, 그리고 심판을 포함한 완성입니다. 종종 무시되는 또 다른 구절. 전도서, 믿든 말든, 311.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제때에 적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는 또한 그들의 마음에 영원을 두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의 일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신 일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의 무언가가 영원한 것들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CS 루이스는 소년 시절에도 이것을 묘사했습니다.

그는 더 큰 현실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서 벗어났지만, 때때로 그는 그것의 정점에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애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쁨을 만들어냈지만, 그다음에는 사라졌고, 그렇게 우리 안의 무언가가 영원한 것들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그러나 구절의 마지막에서 드러나듯이, 저는 ESV를 하고 싶습니다. 일꾼이 수고에서 무슨 이득을 얻었는가? 저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녀들에게 행복하고 바쁘게 하도록 주신 사업을 보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제때에 아름답게 만드셨고, 또한 그는 사람의 마음에 영원을 두셨지만,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나는 그들이 사는 동안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고 모든 수고를 즐겨야 합니다. 이것은 신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영원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지만, 그것은 애매합니다. 구절의 끝에서 지적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에 대한 우리의 욕망에 좌절합니다. NIV 스터디 바이블의 주석에는 다음과 같은 인용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답지만 유혹적인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 크지만, 그 만족은 너무 작습니다.

우리는 영원을 위해 만들어졌으므로, 시간의 것들은 완전하고 영구적으로 만족될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아름답지만 유혹적인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 크지만, 그 만족은 너무 작습니다. 우리는 영원을 위해 만들어졌으므로, 시간의 것들은 완전하고 영구적으로 만족될 수 없습니다.

NIV 스터디 바이블 전도서 3:11. 사실, 이 강의를 하면서 지금 이 구절을 생각해보면, 이 구절은 외부 일반 계시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덕성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인식을 다룹니다.

제 생각엔 그게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초월성에 대한 인식, 영원에 대한 욕망, 하지만 우리가 부분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무능력. 하느님은 자신을 드러내시죠, 오, 그의 아들과 그의 말씀과 기적으로, 그리고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환상과 온갖 좋은 일들, 구약성서에서 제비 뽑기에서.

그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특별 계시이고, 어떤 곳에서는 가끔 주어집니다. 하지만 일반 계시는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곳에서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가지 하위 범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에서의 계시는 소위 외부 일반 계시입니다. 큰 범주,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일반적으로, 창조에서, 인간의 마음에서, 섭리에서. 우리는 처음 두 가지를 했습니다. 창조에서 외적인 일반 계시, 마음과 양심에 기록된 법에서 내적인 일반 계시, 그리고 이제 섭리 또는 역사에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계시는 창조, 양심, 그리고 섭리에서 알려집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섭리적으로 일하심으로써 자신의 많은 특성을 전달하십니다. 사도행전 14장. 이것에 대한 증거 구절은 사도행전 14장과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문맥을 파악하기 위해 8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리스트라에 발을 쓸 수 없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고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고 바울은 그를 주의 깊게 바라보며 그가 믿음으로 건강해질 수 있음을 보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발로 똑바로 서십시오.

그리고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신이 나갔어요. 물리 치료도 없고, 트레이너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군중이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리코니아어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까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또한 두 개의 다른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여러 해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기도의 날을 가질 때, 그런 종류의 일이 있을 때, 학생들은 그룹으로 모였고, 많은 경우 특정 민족의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모국어가 다른 언어라면, 그들은 그 언어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그렇습니다 . 이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리코니아어를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 그들은 모두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리스어를 말했습니다.

코이네 그리스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 치유에 흥분했을 때, 그들은 그 언어로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국어로 외쳤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사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훌륭한 번역가 두 명, 야나와 나타샤가 있고, 그들의 영어는 훌륭합니다. 때때로 나타샤가 제 영어를 교정해 주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 권의 책을 썼고, 그 외의 것들도 썼습니다. 세상에. 제가 단어를 찾고 그녀가 제게 단어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녀가 공급해. 오, 맵소사. 하지만 최근에 나를 위해 코스를 번역해 준 야나에게 물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언어로 기도할 수 있나요? 그녀는 영어로 기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언어로 기도하세요? 그녀는 우크라이나어로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말이 되죠.

그것은 당신의 모국어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린 시절에 처음 배우는 언어입니다. 신들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습니다.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나는 그가 큰 남자다운 수염을 기르고, 나이 든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신들의 왕이야. 그는 제우스야. 폴은 연설자야, 친구야.

그는 위대한 설교자죠, 그렇죠? 그리고 바울은 그를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만약 당신이 판테온을 바꾸었다면, 그는 주요 연설자였기 때문에 머큐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우스의 사제, 알다시피, 바울과 바나바는 이코니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바디 랭귀지를 이해했습니다.

매우 빨리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 도시 입구에 있는 제우스의 사제는 황소와 화환을 문으로 가져와 군중에게 희생 제사를 바치고 싶어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그것을 듣고 보고,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은 옷을 찢고 군중 속으로 달려가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바울이 타르수스 신학교에서 신학교에 갔을 때, 물론 선교에 대한 과정을 수강했습니다.

네, 제가 우스꽝스럽긴 하지만, 그는 예배에 초대받았을 때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수업을 한 번도 듣지 못했고, 당신이 신입입니다. 좋은 유대인으로서 혐오감을 느끼면서, 그들이 여러분의 옷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옷을 찢었어요. 남자들이여,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우리도 남자야.

우리는 당신과 같은 본성을 가진 단순한 필멸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이 이 헛된 것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한다는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확증합니다.

당신은 그것이 외부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까? 네, 하지만 그것은 그 이상입니다. 지난 세대에 그는 모든 민족이 그들만의 길을 걷도록 허락했지만, 그는 자신을 증거 없이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민족이 그들만의 길을 가도록 허락했습니다. 즉, 그들을 때리지 않고, 그들이 받을 만한 정죄로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말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오실 시간, 복음이 전파될 시간 등을 더 주기 위해 그들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증거 없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리토테스(litotes)로, 부정적인 것을 부정하고 긍정적인 것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풍성한 계절을 주시며,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심으로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식탁 교제를 즐깁니다.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거의 막지 못합니다.

정말 이상할 것 같아요. 요약문, 사도행전 14:14~18.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리스트라로 갑니다.

바울의 말씀에 따르면, 태어날 때부터 절름발이였던 사람이 뛰어올라 걷기 시작했습니다(8-10절).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각각 헤르메스와 제우스 신이라고 선포합니다. 사도들은 사람들이 말하는 리카 니아어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제우스의 사제가 그들에게 다가가 소를 제물로 바칠 때의 바디랭귀지는 틀림없습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혐오감을 느껴 옷을 찢으며 이번에는 Christian Standard Bible에서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아,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너희가 이런 헛된 것에서 돌이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다 ." 지난 세대에 그는 모든 민족이 제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는 증거 없이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았지만,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풍성한 계절을 주며 음식으로 채우고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는 선한 일을 했습니다. 다시 로마서 14:15-17.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창조에서, 율법과 마음에서뿐만 아니라 섭리에서 자신을 증거하십니다.

17절에서, 삶과 역사를 정돈하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시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우리의 육체적, 그리고 정서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작물과 과일을 재배하기 위해 비를 내리시는 그의 섭리적 행위에서 자신을

증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 15절에서 명확히 나타난 창조자로서의 그의 역할, 그리고 그의 관대함을 드러냅니다.

그게 신학 용어로 선함이란 뜻이에요. 신의 선함이라는 속성은 그의 관대함을 뜻해요. 그렇지 않아요. 선함은 거룩함을 뜻하지 않고, 악함과 대조되는 선을 뜻하지 않아요.

사실 저는 관대함이라는 용어를 좋아합니다. 자비는 흔히 쓰이는 또 다른 용어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한 그의 관대함, 선함, 자비.

이것은 일반적인 계시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하신 주님의 아버지는 구원받은 농부와 구원받지 못한 농부에게 비를 주심으로써 선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이 계시의 시간은 연속적이며 계절마다 암시됩니다.

그리고 이 계시의 범위는 전 세계적입니다. 비, 음식, 행복이 암시되는 곳마다, 그들의 신은 그의 관대함, 그의 친절함을 나타내셨습니다. 구원하는 친절을 생각하지 말고, 그의 선함, 그의 자비를 생각하세요. 그는 선한 신이며, 그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선물을 줍니다.

하늘과 도덕적 지표가 있는 인간의 마음뿐만 아니라 채소, 과일, 음식, 교제, 기쁨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7장도 역사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의 일반 계시에 대한 또 다른 유명한 증거 본문입니다. 문맥, 아테네의 바울, 1716년.

바울이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는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그리고 매일 우연히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시장에서 논쟁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 중 몇몇도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어떤 이들은 이 떠벌리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가 예수와 부활을 전파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의 신들을 전파하는 사람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린도인들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했지만, 죽은 자의 부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시체를 보고 잘못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서신 학자들의 합의입니다. 그들은 부활이 좀비와 같은 시체의 부활을 포함할 것이라고 잘못 생각했고,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요, 바울은 부활의 핵심 개념은 변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활을 언급했을 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의 불멸을 믿었지만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저, 오, 허약한 몸이 일어나는 것일 뿐, 오, 그것은 끔찍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잡아서 아레오바고로 데려가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제시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까? 당신은 우리의 귀에 이상한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제, 그곳에 사는 모든 아테네인과 외국인들은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본문에 아주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모든 면에서 매우 종교심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지나가며 여러분이 경배하는 대상을 살펴보았더니, 알려지지 않은 신에게 바치는 이런 글이 새겨진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경배하는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이 만든 성전에 살지 않으시고, 마치 무언가가 필요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기지도 않으십니다. 그분 자신이 모든 인류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한 사람에게서 모든 인류를 만들어 온 땅에 살게 하셨고, 정해진 기간과 거주지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혹시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그는 실제로 우리 각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니, 그는 그들의 이교도 시인 중 한 사람, 그들의 이교도 시인 중 한 사람의 말을 인용하셨기 때문이라. 우리는 그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니, 여러분의 시인 중 어떤 사람도 말하였으니, 우리는 참으로 그의 자손이니라. 이 인용문은 에피메니데스 의 것으로 생각된다 .

첫 번째는 확실하지 않지만, 두 번째는 아라투스에서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쪽이 더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의 자손이므로 신이 금이나 은이나 돌과 같거나, 인간의 예술과 상상력으로 만든 형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무지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셨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곳에서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정하신 사람으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 다시 듣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나갔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합류하여 믿었는데,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의 디오니시오와 다마리라는 여자와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테네의 회당에서 말했지만, 그는 또한 시장에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말했는데, 그곳은 철학자들이 철학을 하러 가는 곳이었고, 누가 사도행전에서 말했듯이, 새로운 것을 듣기 위한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생명과 호흡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주신다고 확언합니다.

다시 한번, 신이 창조자라는 것은 창조, 양심, 섭리에 대한 그의 계시의 기초입니다. 그는 한 사람으로부터 그것을 만들었고, 그것은 아담, 모든 인류가 땅, 땅의 표면에 살도록, 할당된 기간과 거주지의 경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그의 섭리에서 민족, 사람들의 이동, 국가와

국가의 설립 등을 지시하셨고, 여기에 그들이 신을 찾고, 아마도 그에게로 가는 길을 더듬어 찾고, 그를 발견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 자신의 작가들을 인용하여 그가 임박했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는 다시, 그는 우상 숭배에 대한 비난으로 시작하고 끝맺고,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와 부활을 전파하고, 그것이 그들을 자극합니다.

다시 한 번, 저는 지금 몇 가지 노트를 읽는 패턴을 따릅니다. 바로 같은 구절에 대해서요.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연설하며, 그들의 무수한 우상들 가운데, 거리를 걷다 보면 수천 개의 우상에 대한 보고를 보았는데, 알려지지 않은 신에게 바치는 제단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신약학자 에크하르트 슈나벨은 바울의 선교 여행에 대한 두 권의 큰 책을 가지고 있으며, 그는 모든 도시의 모든 우상을 목록화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학문적 작품입니다. 오, 그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들의 숫자. 일부는 포르노였습니다. 오, 그냥 삶의 직물에 짜여진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시민이 아니라고 여겨졌을 겁니다. 오, 그래서 데살로니가인들은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박해를 받은 것도 당연하다. 어쨌든, 그들의 수많은 우상들 중에는 알려지지 않은 신에게 바치는 제단이 있다. 바울은 그들에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유일하고 참된 신을 선포한다.

23절, 사도행전 17장.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성전에 국한될 수 없습니다.

그의 피조물들은 그를 통제하거나 조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24, 25.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그의 창조물도 지탱하십니다.

그의 일반 은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모두에게 베푸는 자비와 친절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 그리고 모든 좋은 선물을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모든 좋은 선물과 완전한 선물은 빛의 창조주로부터 내려옵니다. 빛의 아버지.

이는 하늘의 천체를 창조한 신에 대해 말합니다. 창세기 1장의 권능에 따라 바울은 하늘과 땅의 창조에서 남자와 여자의 창조로 넘어갑니다. 인류는 모두 신의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일반적으로 땅을 정복하고 돌볼 것을 계획하십니다. 그는 또한 각 민족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들이 사는 곳의 인용된 시간과 경계를 정하십니다.

사도행전 17:26. 이 인용문을 쓰신 하나님의 목적, 즉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어쩌면 손을 뻗어 그분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에 주목하십시오. 27절 인용문 닫기.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을 알게 하시고, 그는 우리 모두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그것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삶을 위해 그에게 의지합니다. 27절과 28절.

하나님은 그 나라의 시간과 장소를 섭리적으로 정하심으로써 자신을 나타내시어 그들이 그분을 찾고 발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창조, 양심, 섭리에서 하나님의 일반 계시에 대한 우리의 해석과 취급을 마칩니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일반 계시의 신학을 추구하고 이러한 것들 중 일부를 하나로 모으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람이 이런 수단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 일반 계시와 기독교 선교 사업의 관계는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에 답하려는 시도가 포함됩니다

.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섭리,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 18절, 그리고 17장 22절에서 29절.

이것은 계시록과 성경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A.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8, 내적 일반 계시, 로마서 2:12-16 및 전도서 3:11입니다. 섭리 속의 일반 계시, 사도행전 14:14-18 및 17:22-29.